

혼미노시/혼미노시에 대하여

미노국(현재의 기후현 남부)에서는 8세기 이전부터 와시(和紙, 일본 고유의 제법으로 만든 종이)를 제조했으며, 그중에서도 최상급 종이를 혼미노시라고 합니다. 혼미노시는 가볍고, 반투명으로 약간의 윤기가 있으며, 오래되어도 열화하거나 누렇게 바래지 않아 몇 세대를 지나도 변하지 않고 보존성이 우수합니다.

경전의 필사부터 장지문까지

미노와시는 본래 절에서 경전을 필사하는 데 쓰였지만, 그 뒤 고급 장지문이나 등롱의 소재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혼미노시는 질감과 보존성이 뛰어나 세계 곳곳의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보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혼미노시를 만드는 법과 재료는 수 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2014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록되었습니다.

겉보기와 다른 심플한 예술

기본적으로 혼미노시 만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우선 펄프 상태로 풀어헤친 닥나무의 인피(韌皮) 섬유와 물을 섞습니다. 그런 다음 점성 분산제를 더해 섬유가 뭉치는 것을 방지하고 물속에서 섬유가 균일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합니다. 섬유를 섞은 액체를 조심스럽게 떠서 눈이 고운 다케스(대나무 발)로 거르면 섬유가 얹히며 형성된 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뒤 압착하여 여분의 수분을 제거하고 햇볕에 건조시킵니다. 원료를 준비하고 이를 적절히 섞어 얇고 균일한 섬유층을 만들게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와 도구

와시 제작에는 닥나무, 삼지닥나무, 안피(산닥나무속의 관목) 등 다양한 식물의 나무 껍질을 사용합니다. 혼미노시는 닥나무라는 관목의 인피 섬유(나무 뿌리 등의 안쪽에 있는 껍질로 만든 섬유)를 제지용으로 가공한 백피(白皮)로 만듭니다. 혼미노시용 닥나무의 백피는 이바라키현 다이고마치에서 조달합니다. 다이고의 닥나무는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줄기가 곧고 가늘며 튼튼하고 부드러운 섬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베시라는 점도 높은 물질을 물과 닥나무 섬유가 들어 있는 커다란 수조에 넣어주면 가는 식물 섬유가 물속에서 균일하게 퍼져 덩어리지지 않게 됩니다. 섬유를 섞은 액체가 다케스를 통과하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장인이 종이의 두께를 조정하기가 쉬워집니다. 네베시는 닥풀이라는 식물의 뿌리를 짓이겨 물에 담가 추출한 투명한 점액입니다.

혼미노시 제작에 쓰는 도구는 전부 손으로 만듭니다. 닥나무의 백피를 찢어서 풀어 해치는, 국화 무늬가 새겨진 둥근 나무 망치 등 일부는 미노 지방만의 독자적인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하나를 각각의 전문 장인이 만들고 있지만, 도구 제작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이를 뜯 때 사용하는 ‘다케스’라는 눈이 고운 대나무 발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케스는 대나무를 쪼개고 깎아 가공한 대쪽 3,000개로 구성되는데, 명주실로 엮어 만듭니다. 하나의 다케스를 만드는 데 보통 일주일 이 걸립니다.

전통을 지키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지문 등 옛날부터 내려오던 종이의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기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고품질의 종이를 낮은 가격에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엽에 미노시에는 3,700군데의 와시 공방이 있었지만, 현재는 20군데 이하로 감소하였고 그 가운데 혼미노시를 만들고 있는 곳은 여섯 군데뿐입니다.

혼미노시를 지키고 널리 전달해나가기 위해 혼미노시보존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장인들의 기술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미노시에서는 미노와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연수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혼미노시는 예술작품, 현대적인 등롱 제작에 사용되고 있으며, 교토 영빈관의 장지문과 조명 기구에도 채용되었습니다.